

제 7 과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는 보내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본 문

사도행전 10:44-48

암 송

사도행전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프레임(Flame)의 법칙

프레임(Flame)의 법칙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떤 프레임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

프레임 = 생각의 틀, 고정관념, 편견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인 골든 올포트(Golden Allport)는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요,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면 무서운 편견, 즉 고정관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회개 운동도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렇듯 종교(율법)라는 이름으로 갖게 된 잘못된 프레임, 곧 고정관념(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을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같은 존재로 여기며 멸시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행 10:20)고 명령하시며, 그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던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힘으로 무참히 빼앗고, 상상조차 못할 고통을 주던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야 할 이유도 없고, 서로 만날들 결코 감정이 좋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1.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행 10:44~45)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유대인로서의 생각의 고정관념, 곧 프레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듯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행 10:45) 무척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개' 같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힘으로, 권력으로 굴복시키고 괴롭히는 로마 제국의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푸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행 10:47~48)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그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푸를 금하리요”라는 고백처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보내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이 분명한 사람은 설령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열매1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해당 되는 구절에 체크해 보세요.

| 성경구절 | 말씀 | Check |
|--------|---|-------|
| 엡4:32 |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
| 약1:4 |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
| 요13:34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
| 엡6:1 |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
| 롬4:20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
| 롬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

열매2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매3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